
제8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1960년6월17일(단기4293년) 상오10시45분

의사일정

1. 제8회정기회제2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구성의건
-

부의된안건

1. 제8회정기회제2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구성의건 ... 7面
-

(10시 45분 개의)

○부의장 김석근; 재석의원 23인으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8회정기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8회정기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김종룡;

(제8회정기회제2차회의록을낭독함)

○부의장 김석근; 지금 낭독한회의록중에 누락이나 착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록에 서명할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득 조영석 양의원께 서명할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보고사항 집행부 보고사항 해주세요.

2. 보고사항

○간사장 이종룡;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직업소개소설치조례중 일부개정건

6월14일자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 단기4292년도 이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에 비지출승인재요청에 관한건 6월14일자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3.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건 6월13일자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 사회보건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상수도 품푸장용지및집수정신설용지)

6월16일자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 개정공포에 관한건

6월2일자 서울특별시조례178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부의장 김석근; 다음에 보고사항 김재순의원말씀해주세요.

○김재순 의원; 여러가지 의사일정과 또 시간관계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 겠으니 집행부 내무국장 산업국장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또 그다음에 의회계에서 이보고사항을 관계관에게 오늘중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앙청에서 전국에 영농자금으로서 4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서울시만 빠졌습니다.

한가지 예를 보아서 제주도가 2천백만원이 할당이 되었는데

데 서울시내에 경작면적이 제주도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정은 일자가 이달 19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들은 서울시에서는 영농자금을 받도록 19일 이내에 적극 중앙청과 교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 시일도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관계관에게 의회계에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어저께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어저께 질의종결 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지 못한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보고사항을 빌여서 마 긴급하다면 긴급하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고사항 시간을 빌여서 집행부에 몇가지 요망사항이 있는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애국가 모든 충실한 공무원은 이 과도기에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책을 그 전보다 더 충심으로 지킴으로서 나는 애국가요 또는 충실한 공무원이라고 보는 동시에 그야말로 공화국에 애국공로상이라도 줄수있는 이러한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이 과도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에 수도행정은 썩고 썩어 엉망진창이고 앞으로 하절에 참 시민이 물을 많이 쓰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8월 9월에 음료수의 기근이.....

위기가 닥쳐 오지 않을까 나는 우려되는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이다 무엇이든 하는것을 떠나서 우리 과도기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음료수 상수도 문제만은 중요하고 집행부에서는 참 노력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줄 믿습니다.

이 한가지 예로서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에 30만톤에 가까운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수도세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것은 4할도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중구청만 하더라도 수도징수급수사용료 미수액이 1억7천만환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안만 생산해도 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각자가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사다가 갖다 놓았는데 좋은 양수기를 전부 나쁘다고만 해놓고 가서 보면 전부가 좋은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기를 속여먹고 또 돈을 받어서 여기에 무려 한 구청에 1억7천만환의 미수액을 낸 일선 구청의 과장 수도행정을 좀먹고 생기고한 이사람들이 다부 또 본청에와 그것을 통제하는 그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과도기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수도행정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또 물 절약에 대한 양수기를 이것을 속히고 부수고 뭐 엉망진창 만든 이 일선과장을 바로 그런것을 통제하는 그 계장으로 갖다가 본청으로 불러다 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러한 비위사실이 있는 이런 인간을 즉각 아주 파면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하절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상수도 문제만은 꼭 해결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특히 중구청에 있어서 한구청에 1억7천만환이라는 그 미수액이 있고 그 중구청에서 양수기가 나쁘다고 보고했는데 가보니 전부 바꾸라 말이에요.

이런 무책임 하고도 그야 말로 서울특별시에 수도행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이러한 과장을 갖다가 본청에 그것을 통제하는 계장자리에다가 영전시킨 이런 인사행정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인은 대단히 모순된다고 보는데 결국 도적놈이 도적놈을 못잡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즉각 파면을 시키라고 권한외에 발언입니다만은 나는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석근; 다음 한진점의원 보고하겠습니다.

○한진점 의원; 이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집행부장인 시장께서 잘들어주시고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장이라고 하면 이와같이 시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혹시 이문제가 되어가지고 서울 특별시 의회에서 논의 안될른지는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시민의 생활과 이해관계가 있기때문에 말씀아니 드릴수없는 형편이올시다.

또한가지 사과의 말씀드려 들것은 이말씀은 전의장인 박명준의원께서 직접 보고해야될 문제이지만 본의원이 대신 말씀드려 두는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것이 아니라 약 3일전에 남산 꼭대기에 80억 내지 90억을 드려서 국회의사당을 건축하게 하든것이 중지되고 그다음 물망에 올른 장소가 이전부터 물망에 올라있던 종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묘동일대 다시 말하자면 종묘앞에서 종로4가까지 가는 상가 돈화문에서 단성사앞을 통하는 그주위에 동네에는 호수가 약 1천여호 세대로 말해서 2천5백여세대 인구로 한호수당 5명씩 치더라도 1만2천5백명 이것을 당값으로 말하면 싼데는 20만환 비싼데는 약 1백만환정도가 가는 데 평균 따져서 40만환 내지 50만환 이 지가를 계산 하면 약 400억 그외에 건립된 건물을 합치면 약1천억에 가까운 금액을 계상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있어서 90억 내지 100억을 드리는 국회의

사당이 비싸고 또는 수도관계가 불충분해서 여기에 질수가 없어서 후보지로서 종로가 물망에 올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1만2천5백명에 대한 대책 문제가 특별히 태두되는바올시다.

하필이면 이와같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수자를 계상하는 이장소를 국회의사당의 후보지로서 책정해야만 되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창덕궁에 약20만평에 달하는 휴유지라 하면 휴유지 노는땅이 있으니 여기에도 얼마든지 질수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본인의 출신구는 아니지만 나도 5만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사정을 여러분들 앞에 또는 집행부장에게 말씀 안드려 줄수없는 형편이 올시다.

그 반대이유로서 이사람들에 대한 생활근거가 일조일석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제에 있어서 1천억에 가까운 보상금을 과연 지출할수있을 것인가 또 이사람들을 어느곳에다가 이주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태두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집행부장인 서울특별시장이거나 또는 존경해마지않는 의장 내지 부의장 선배 제의원께서 이 대묘동 1만2천5백명에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또 물론 이분들이 국회나 또 시 기타 요로에 진정서를 내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때에는 적극협력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부의장 김석근; 다음은 강을순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러면 더 보고사항 말씀하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고사항 이것으로서 끝마칩니다.

다음 오늘 여러의원께서 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의사일정에 오른 안건은 없습니다.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제안되었는데 노승환 의원외 5인으로서 제안이 되어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노승환의원 제안설명 말씀해 주세요.

3.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구성의건

○노승환 의원; 방금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불초 본의원이 제출해서 작금 이내용에 대한 주문을 여러의원 여러분에게 석연히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작일 본의회에서 본긴급동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했다고 하는 이점에 비추어서 장구한 시간을 요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전에 필히 말씀을 올려놓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방금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이라고 해서 동의안에 제출한 서면이 불초 본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했던 내용과는 좀 달리되어 있다는 데에서 본긴급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써서 오늘 본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용지에다가 되어있습니다.

마 이것은 어제 이러한 시시비비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면 불초 본의원도 그냥 제안설명만 말씀드리고저 합니다만은 어저께 장시간을 요해서 시시비비를 가했다고하는 이사실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러두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부의장 김석근; 조용해 주세요.

○노승환 의원; (계속) 이긴급동의안 방금 의장께서 불초 본 의원에게준 주문은 의원발언진상규명의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약2, 3일전에 제출했다고하는 그 주문은 의원발설규명조사단구성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올시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고하면 이문제는 방금 의장단에서 의장을 물어보시는 의장께서 본의원이 제출한 긴급동의안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아니 드릴수없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부의장 김석근; 저 사회자가 본인의 신상발언을 하기때문에 제가 사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긴급동의안을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저와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제안한 그 서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사계에서 계원이 제대로 왔습니다.

그서류가 없으니 얘기를 하지못하겠다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얘기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동석의원이나 조영석의원이 설명했으니 그건명을 알터이니 두분께 물어서 그건명을 갖다가 상의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복도에서 노승환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 우선 건명을 몰라서하니 건명을 가르쳐주세요 해서 건명을 가르쳐 주어서 결국 의사일정에 유인물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시 계속해서 찾아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것을 다시 노승환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쓴걸로 알고 노승환의원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우가 이렇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요」 하느이 있음)

○방동석 의원; 이거 분명히 규칙에 걸려있는듯 해서 규칙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회의규칙에는 의장이 당일날자 의제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할때에 다음날자 즉 내일날자 의제를 미리 공포키로 되어있고 그문제에 順해서 다음날 회의가 연속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과장은 인준을 받은지가 몇일 안되니까 아직 우리 의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조례를 채 미처 연구하지 못했든 탓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나 적어도 의회계장 또는 그것을 보좌하는 계원 또는 정부의장은 분명히 이와같은 사무절차를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자 다시 말하면 8회정기회 3차회의 의제는 의제가 없이 이회의를 지금 개의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운영위원장을 거쳐 가지고 부의장 의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것이 수정이 되어야할 터인데 이것이 사무적으로 조절이 못되었다 하는데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노승환의원이 발의한 긴급동의안은 그것은 일반동의안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이라고 할것같으면 그의사를 다시 변경하는데에 가부가 선행이 되어야 될것입니다만은 노승환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일반긴급동의로해서 그 의제를 분명히 어저께 날자 2항 3항 4항으로 걸쳐져야만 될것으로 알고 그것은 분명

히 오늘날자 회의에 분명히 의장은 내일날자에 심의해줄 의제가 이러 이러한것이라고 하는것을 선포하고 철회를 시켰든것입니다.

그러면 이의제는 자동적으로 어저께날자 말미에 걸려서있든 또자동적으로 걸려지게된 4항 의제가 오늘 제3차회의에는 제1항으로 자동적으로 올라지게 되는것이고 또 자동적으로 올르든지 스스로 받아들여야 되는것입니다.

긴급동의가운데도 의사일정을 변경할때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해서 따로 따로 의사를 정해야 되는것입니다만은 일반 긴급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을때는 자동적으로 의제에 걸리고 긴급동의안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부쳐나가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것은 분명히 규칙과 의사진행에 우리가 관례와 전례를 쫓아서 진행하게 된다면 혼란이 없을것이고 다만 이러한 의제에 의해서 노승환의원이 제안설명만 여기에서 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문학우 의원; 우리가 제3대국회당시 고신익희 의장께서 백주에 국회의사당에서 낮도깨비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마 서울특별시 시의회도 낮도깨비가 나온 모양 같애요.

어저께 이 긴급동의안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란을 했었고 긴급동의안을 접수한 의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까지를 했든것입니다.

이제 노승환의원이 제안설명에 앞서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의제와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는 이긴급동의안에 의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긴급동의안을

접수를 해서 의회계를 거쳐서 의장의 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의 공문서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이공문서를 망실한것도 잘못이려니와 하물며 그것을 조작했다고 하는것은 용납할수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조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어떠한 제안자의 본의아닌 제안설명을 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지않이합니다.

노승환의원이 제안한 의제는 분명히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구성에 관한건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의안의 내용이 의원발설진상규명에 관한건이라고 하면 조사단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사회를 맡으신 부의장이 약간 여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해명은 석연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문서를 조작했다는 단정을 얻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될것이에요. 이규명을 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본건을 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한 결함이 다시 생기지 않을까 단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선 노승환의원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공문서를 허위조작한 경위부터 규명하고 이것이 석연히 납득이된 연후에 제안설명을 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맡으신 의장께서는 이점을 먼저 규명을 해주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 의원; 의사진행으로 나왔습니다.

규칙검 의사진행을 해야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있어서 어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 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의원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있어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것이 옳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또 이러니 저러니 뭐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느니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도 일리가 있는줄 압니다만은 오로지 우리가 의회에서 오늘 노승환의원이 내어 놓으신 긴급동의안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얘기가 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칙상 순서만 없으면 되는것입니다.

오늘 노승환의원이 이자리에 나오셔서 자기가 과거에 내어 놓았던 안건에 대한 건명하고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셔서 다섯사람 이상에 찬동만 받으면 그냥 즉석 이자리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즉각 노승환의원이 나오셔서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김석근; 노승환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안을 갖다가 의장으로 찾지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제 말미에 넣지 못한것은 어저께 산회 할적에 성원이 미달되어서 이것을 논의하다가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의제로서 상정 못한것이고 오늘 긴급동의안의 설명을 들어가지고 의제로 채택이 되면은 이것을 의사진행할 작정이 있습니다.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최인호 의원; 어제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갑론을박으로서 장시간 논란끝에 어느 한사람도 반대없이 만장일치로서 이것을 채택 결론진 것으로 알고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분실이된 사실규명으로서 나와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접수했다는것을 시인했어요.

그러면 이 의제가 접수되었다는것이 시인이 되었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올라와야될 서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분실 경위를 추궁하고 의장단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이 이 분실한 서류를 반드시 찾겠다는 이런 전제 밑에서 이것을 어제 산회 할적에 오늘 의제로 내놓겠다고 하고 산회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반드시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될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어디있느냐 하면은 분실된것을 찾지 못했다는 의장은 당연히 여기에 나와서 서류취급을 소홀히 했다는것을 사과해야 되는것이에요.

사과한 연후에 제안자인 노승환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텐데 덮어놓고 올려 논다든지 설명하겠다 하지말고 즉각 의장이 나와서 사과를 하세요.

(「의장」 하느이 있음)

○부의장 김석근;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홍순우 의원; 대단히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서류를 여기에다가 놓아두었드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어저께 재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서류에 대한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이 서류의 경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저께 정부의장이 서류를 찾아본 결과 없기 때문에 오늘 좌우간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놓아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잠깐 복도에서 이회의를 파하고 올라가다가 노승환의원을 만나서 그 주문 요지가 뭐였드냐 하는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발언통지에 대한 그얘기 아네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히 사무처직원을 불러서 당신들이 봤으면 서명한 사람이 누구며 또한 그 주문이 무엇인지 알것이니까 거기에 대한것을 좀 말해주시요 했습니다.

그랬드니 의원발언진상규명의 건이라고 이랬습니다.

그래 내가 써가지고 서명은 누가 누가 했느냐 하니까 시방 말한대로 이렇드라 그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썼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들어가 가지고 노승환의원이 제의자라고 해가지고 노승환의원에게 그것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으니 여기에다가 이대로 사본으로다가 하는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승환의원이 좋습니다.

그런 결과 서명한 사람이 최종욱의원도 여기에다가 서명을 했으니까 최종욱의원도 서명을해야 한다고 노승환의원 자신이 말미에다가 최종욱의원 이름을 쓰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동석의원 한테도 보였습니다.

방동석의원한테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 이것으로다가 사본으로 대하는것이 좋지않소 해가지고 방동석의원 역시 그사본을 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사무처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어저께 채택하기로 한 그의사일정과 같지만 한번 확실히 하기 위해

서 했다고 하는것이 지금 아마 그 의제가 처음에 노승환의원
께서 제출한 의제가 좀 다른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경위는 그렇게 된것만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불란을 이르킨것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입니
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김석근; 운영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운영위원장 장의순; 어제 이 안건이 채택됐다 혹은 안됐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어제 오후 회의최종말에
가서 성원 미달이었읍니다.

성원이 미달이된때에 무엇이 채택이 될것입니까. 그래서 회
의가 말미에는 유회하다싶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문제를
오늘 긴급동의안으로 채택해서 노승환의원이 원래 제출했던
것이니까 노승환의원이 발의한 안건 그대로 상정해서 제안설
명을 듣고 의사진행을 계속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
립니다.

어제 분명히 마지막에 성원이 안되어서 결국 내일 속개하
기로 하고 산회했던것인데 성원이 안되었는데 뭐가 채택이
되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안건을 올릴것인데 채택이 되지못
해서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안건을 사무처에 가서 물어보아서 내용이 어
떻게 되었던가 하는것을 문서를 어떻게 꾸렸는지 모르겠습니
다만은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정해
서 의사진행을 할까해서 안올렸던 것입니다.

그런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고 결국 문제는 의원발언에 대
한 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하자 하는것이예요.

그러니까 다소 순서절차상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는이상 더 시간을 끌지말고 노의원이 발의한 그대로 안건을 상정해서 노의원의 제안설명듣고 의사진행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제로 그냥 올리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김석근; 조영석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조영석 의원; 어저께 이 문제가 논의되었을적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 성원이 미달이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이 분실된 서류를 내일 아침 개회시간까지 찾고 안찾는 경우에는 다시 낸다든지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자 이렇게 하고 내일 10시 개회할것을 의장이 산회 선포를 할당시에는 성원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저께 의제는 채택이 된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문제될것은 서류가 없어졌다 그없어진 서류가 오늘 이시간까지 만나왔다고 하면은 그대로 지금 알아보니까 어디서 사본같은것이 새로하나 나와 가지고 웃지못할 희극을 하는데 이것은 또 우리가 불문에 부치고 이 서류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그것이 문제가 안되는것이고 일정으로 된것이에요. 또 본래서류도 그렇게 부피가 많은 내용이 복잡한 서류가 아니고 그 설명을 구두로 하기로 작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서류 분실에 대한것은 조금 아까 의장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경위를 말씀 드렸으니까 이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않을까해서 별말없이 의사진행을 하고 차후로 노승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할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하겠습니다.

(「규칙발언이요」 하는이 있음)

○부의장 김석근;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본질적으로 이의원 발언진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원회의 본회의 석상 이외에 타 사회에 나가서 발의한 문제가 우리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의회에서 논○이 되든 이문제면은 이의사를 해도 됩니다만은 그당시에 갑의원이 말씀했든 그말씀에 대해서 을의원이 반박도 할수있고 변명도 할수있는 이기회를 다 놓칠 오늘에 야서 감정의 자발인지 혹은 감정의 유발인지 감정적으로 어떻게 이문제가 태두된것 같은데…….

言弊가 있습니다만은 의원 발설 진상에 있어서 대략 얘기를 들으니 본의원이 대단히 죄송하나 어제 저녁 오후 회의에 없었습니다.

5·8라인인가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불가불 2, 3개월 연기 해 봤댔자 10월까지 임기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자꾸 허비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홍의장님도 공문서류를 잊어버렸으면 본인한테 재제출 요구를 하는것이지 이것은 위조입니다.

어떠한 관공소나 제출한 서류가 없을때는 본인한테 경고를 해서 재제출 여부의사를 물어볼수 있는것입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하시고 이문제에 있어서는 그때 회기가 끈어지면 모든 안건은 유효이든 무효이든 결정이되고 맙니다.

재제출한 그 안건이 처음부터 살아 올라온다는것은 몰라 그러되 강을순의원이 말씀했는지 누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의원 발설문제에 있어서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는 태도를 보니까 어저께 발언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說자와 言자가 다

르다 그래서 말씀설자와 말씀언자는 다르지만 내가 쓰는것은 발언이요.

이것은 발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은 좋되 그렇게 이문제에 있어서 치열한 논쟁과 뚜렷한 무엇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매사에 우리 졸업기가 되어 가니까 귀중한 시간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라면서 적당히 해결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 말하자면 변명할수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지금 다시 재현할수 없습니다.

이것 타지방에서 말했다면 조사할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김진용의장 다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오셔서 무슨 말씀 그때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도 지금 말할수 있습니까 문의원은 모르실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점에 있어서도略하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근; 제출된 서류를 분실해서 여러가지로 장시간 논의한데 토해서 의장단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노승환의원 계속해서 긴급동의안 설명해 주세요.

○노승환 의원; 방금 본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서 제출한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오늘 양일간을 통해서 왓가왓부 장시간을 글게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두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것입니다.

내가 어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방금 이자리에 나오셔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감정적인 문제인것처럼 말씀을하시는데나 이것 감정적인 문제 아니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초대 시의원으로서의 임기도 이제 3, 4개월밖에 안남은 이 단계에 적어도 역사의 1페이지에…….

여러의원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졸업 시기에 와 가지고 더러운 오점을 장식하고 돌아간다는것은 이 노승환 한사람만이 아니라 44명 시의원 전체에 국한된 문제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서 발설을 규명하자는 문제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의원 각자가 이구동성으로 나오셔서 이문제를 해결하고 잘 알아보자고 하는것이에요.

어느 일개인을 중상하거나 모략을 하고자 하는데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이자리에 나와서 두서없는 말을할 이사람도 규명을 받아야 될것이에요. 이문제를 여러의원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본의원 우리의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47명 가운데 한 말석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그야말로 졸업기를 앞두고 이런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이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라 45명전체의 의사일것이라는것을 전제하면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전에 2백만 시민과 우리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입이되고 귀가되고 우리를 대변해줄수 있는 서울특별시 출입을 하시는 기자 여러분께서 본안건 자체에 대한것을 지난번 지상에 우리 45명 전체에 오점이 찍혔다고 하는이사실을…….

이것이 어떻게 규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천하에 공개해 주십사 하는것을 현하 이의회에 장의순의원 안계시나 마이크를 통해서 흑백을 가져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두며 제안설명을 하고저 하는것입

니다.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우리의원 비밀로 원의에 회합을 해 오자고 하는 사실에 비추어서 지상을 통해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45명이 이번 4·19혁명의거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나라의 신생 제2공화국을 구성하자고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에 이나라의 정권을 잡고있는 위정자들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민족의 반역자로 각인을 찍었다고 하는것만은 우리 의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공인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번 3·15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제1공화국의 위정자들은 규탄을 받어서 나쁜말로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 콩밥을 먹고있다고 하는 이사실도 부인할수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그것은 만백성들의 만민평등이 가지고있는 권리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가운데에서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의 규탄을 받는 이하나의 핵심이 만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3·15부정선거를 치루웠다고 하는 이사실에 이가운데에서도 우리 45명에 해당하는 시의회 의원이 그피땀을 흘려서 고혈을 빨은 이돈을 적어도 2억환내지 3억환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을 우리의회원이 먹었다고하는 하나의 신문지상으로 발설되었다고 하는것만은 여러의원이 잘알고 계시고 이사람도 알고 있기때문에 다시 재론을 안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얼마전에 지상을 통해서 김모가 8백만환에 해당할수있는 자금을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먹어 쳤다고하는 이러한 사실도 지상을 통해서 이사람 역력히 알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고 하면 평상시에 다른 의원 각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에 대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는 우리 의회 의원이라고하면 어디까지나 진부 여하 즉말하자면 먹은 사람은 먹은대로 역력히 될것이요 안먹은 사람은 안먹은대로 4년을 졸업받는 단계에 다 도매값으로 이졸업상을 받는다고 하면 도저히 의원각위 이점은 용납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밑에서 이사람 금반 이것을 확실히 조사단을 구성해서 상을 주어야 할사람은 상을 주어야할것이고 벌을 줄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45명의 전체적인 시의원을 도매금으로 넘겨서 다 똑같은 죄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겠지만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에서 금반 긴급동의안으로 제안을 한것입니다.

현명하신 의원제위께서는 이긴급동의안을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나 진지하고 현명하신 조사를해서 상벌에대한 확정을 가져올수 있는데 까지는 여러분의 절대하신 성원이 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 3·15부정선거의 만백성들이 규탄을하고 있는 이 썩은돈을 먹었다고하는 시의원의 이오점을 확실히 미거한 시간내에 조사단이 어떤분이 구성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로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근; 김동순의원 규칙발언 말씀하세요.

○김동순 의원; 의제하고 제안설명한 사람의 제안설명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원이 발설한것이 아니고 신문지상에 대한 사회적 문제 즉 시의원이 3·15때에 돈을 얼마 먹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데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발설 문제치고는 어떤 의원이라는 소리 이름도 안들어갔습니다.

노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데에 만약에 녹음기를 틀어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의제를 고친다든가 혹은 의제를 고칠필요가 없다면 의제에 부합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대단히 지금 의원 발설 문제가 어느의원이 말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문제에 있어서는 찬성 연설은 제안설명이 완전히 된다음에 찬성연설입니다.

그래서 규제상 노의원께서도 올라와서 어떤의원이 발설을 한것인지 혹은 신문지상에만 본것인지 여기에대해서 밝혀주세요.

○노승환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이가운데에 있어서 의원이 이름을 확실히 대지않었다고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방금 말씀을 하신 김동순의원께서는 근자에 여러가지로 공사간에 분망하신 까닭에 지난번 우리가 원의로 회합을 가졌든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느의원이라고 하는것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동순의원께서는 대단히 불초 이사람이 그말씀을 안드렸지만 다알고 계신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좀 양해하시고 만약 밝히라고 하면 그것은 보충설명이 나올것이니까 그분에게 일임하고 아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석근; 문학우의원 찬성발언 해주세요.

○문학우 의원; 본의제 제3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안건에 대해서 김동순선배께서는 의제와 제안설명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승환의원의 제2항 설명으로서 충분한 납득이 가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사당내에서 의원이 발언한것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의원으로서의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 탈선적인 발언이 아니면 오늘날까지 상호 위치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규탄을 하지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범주를 벗어나서 어떠한 일개인의 자기선전 또는 자기 위치를 확고히 만들기 위한 선전술에 의거해서 의회 전체의 명예훼손이나 의원 각자의 위신을 실추 시켰다고 하면 의당히 규탄의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노승환의원을 필두로한 의제 제3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5월27일 합동통신 제5편에 서울특별시의원 부정선거 매수설이라는 「타이틀」 밑에서 대서특필의 기사 나왔든 것입니다.

이합동통신의 기사에 의거해서 5월28일 부세계일보 조간 조선일보 조간 연합신문 조간 각일간지 조간에 김수길의원의 발설에 의해서 서울시의원 몇몇명이 임흥순의장으로부터 부정선거 자금을 받았다고하는 이러한 의사 내용이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신문 기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의사발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의회내에서는 상당한 암류가 흐르고 있었든 것입니다.

급기야 이문제를 만천하에 공표해서 철저히 규명하자는 일과와 그대로 김수길의원의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살을 해

버리자하는 어떠한 의원들과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든 것입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다가 6월1일날 제8회정기회의의원식을 계기로 해가지고 비공개 비밀회의를 바로 이의사당에서 했든것입니다.

그때에 발설의 장본인은 김수길의원이 분명히 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해서 여러의원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한 결과가 지극히 발설의 근거가 모호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수길의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시켜봤읍니다만은 최종의 김수길의원의 답변이 사과를 할수없다 이렇게 나온것이예요.

사과를 할수없다고 하는 이유는 고양군에 출마를 하기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일단 발설한 이상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문제를 규명을 해야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회의에 긴급동의안을 내서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자기가 조사위원의 한사람이 되어서 이문제를 규명하는데에 전력을다하겠다는 말을 했든것입니다.

그말의 결과가 오늘날 이러한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단계를 만들고 말았든것입니다.

물론 김수길의원이 어데서 어떠한데에 근거를두고 전체 국민들이 구독하고있는 일간지상에다가 그러한 발설을 해가지고 시의원 44명 전체의 위신을 손상을끼친 점에 대해서는 김수길의원도 형사상 또는 도의상 책임을 질수있는 근거가 있기때문에 그러한것을 공공연히 발설을 했다 이렇게 믿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이문제를 일단 정식 의제

로서 제안되어서 논란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철두철미 전국지방의회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사람의 출세나 영전을 위해서 시의원 44명이 전체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의원 상호지간에 불미 불순한 행위가 누차 누적되어있는 사실을 내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짐작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이문제를 계기로해서 앞으로 다시 발생할수 없는 사태를 가로막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냉철하신 판단밑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철저히 규명 또는 해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보충설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김석근; 한진점의원이…….

보충과 찬성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의장 규칙이요」 하는이 있음)

규칙 먼저 하세요.

○장을순 의원; 규칙 발언 나왔습니다.

이제 의장께서 긴급동의안이 나와서 우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외에 또한분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택 여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원의로 물어서 이것이 채택이 되면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할 것이고 또 채택되기전에 보충 발언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어요.

기히 문학우의원의 보충설명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저 잠
자고 있었지만 우선 의장께서 이안건에 대한 보충설명이라든
가 찬동 또한 반대 이것이 발언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채택 여부를 의장이 원의로 물어주시기 바
랍니다.

○부의장 김석근; 이것이 아까 노승환의원께서 이안 제안설
명을 하다가 도중에 들어간 후에 의사진행 발언 기타 규칙
발언 이러한중에서 최종으로 조영석의원께서 어저께 의제는
채택하기로 하고 어제 산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제가 올라간 것이지 올라가기 전에 결국은 채택이 되기전
에는 여기에 올라가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로서는 어저께 하오 산회 직전에 성원이 되
어서 오늘 이의제를 상정하기 위해서 오늘 개회를 한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제로 올린것입니
다.

(「채택 안되었어요」 하느이 있음)

김동순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김동순 의원; 지금 의제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만은
의장님께서 의장님과 같이 견해를 가지고 계신분이 착각을
일으키셨는데요.

오늘 처음 이문제가 논란될때에 노승환의원 나와서 제안설
명 하겠다고 하고 오늘 비로서 긴급동의안 제출한 서류를 노
승환의원에게 手出해 가지고 노승환의원이 처음에 거부했다
가 다시 올라와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참고이지 실질적으로는 어제
사실은 성원이된 결과에 있어서 긴급동의안이 채택이된 형식
이 되었읍니다만은 오늘 다시 이렇게 다시 그제안설명이 갱

신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형식과 실질적으로 합쳐서 해석을할때에 지금 아직 이 의원발설 진상 규명 조사단 구성의 건이라는 건 명 기재부터 잘못 되었어요.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으로서 올라와야 되는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긴급동의안 설명을 하는것을 노승환씨 하는것을 보고 듣지않았어요.

채택 여부를 형식상이라도 결정한다면 그의견은 강을순의원 말씀이 맞는것이고 규칙상 사실에 있어서는 문학우의원께서 보충설명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보충설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노승환의원의 설명이 부족하니까 나와서 보충설명을한것은 확실히 증명되고 노승환의원께서 완전무결한 제안설명을하셨든들 문학우의원께서 등단할필요가 없었을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무렵에 있어서라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넘어가는것이 규칙상 당연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노승환의원께서 하지않았어요. 그러니까 채택여부를결정해 가지고 이문제는 아까도 제가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의회전체에대한 위신문제나 의원일신상의 형사책임 문제나 행정상기밀에 속하는의제가 논의될때에는 당연히 세계각국의 이 통칙을 통람하드라도 비밀회의로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지금말하는것이 신문기자를통해서 기사화하면우리가 속죄가될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먹지않은것을 먹었다고했다면 처벌을당해야 될것입니다.

또 먹은 사람이있다면 당연히 규명을해야 됩니다.

전내무장관 최인규같이 거물급도 지금철창에 갇혀있는 이

때에 이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처음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회의를 할수있어요? 없어요.

(「의장」 하는이 있음)

○김재순 의원; 지금 저 녹음기를 어제껏 틀어보세요. 어제 만일 채택이됐으면 나도동의한 한사람으로서 어제 나 밤새울라고 각오했습니다. 어제 노의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만약 반대하는 의원이있다면 돈먹은사람이다해서 옹소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오늘심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방동석 의원; 우리 이거 저 이런의제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다루어 지게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물론 아까 동의안을 발의하신 노승환의원께서도 그 발의하게된 동기를 충분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방법론에 있어서는 비밀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토론없이 가부를 표결한다는 방법은 있을지언정 지금 이 마당에있어서 규칙으로 3항의사진행을 반대하자고 한다든가 기타 천연을 시킨다는것은 타의가 있지않은 한에도 부자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본3항은 어제날자에 걸려진 의제를 다 정리하고난 다음에……. 일반동의안은 5인이상의 동의로 의제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원의로 채택되지만 이것은 5인의동의로 상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오늘 계속 상정된걸로 알고 어제 제안설명이 마치 없었기 때문에 제안설명만 오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합법적으로 오늘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문제는 첨가시킬것은 김동순의원이 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의원 상호간에 관한 일이고 이 대내 대외적인 비중으로 보아서 비밀회의로 한다는것은 우리 원의로 결정한

다든지 의장직권으로 할수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요청 안하더라도 당장에 징계 내지 제재 하자고 하는것이 아니고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것이고 이것이 기히 신문에 보도됐고 조사단을 구성하는 건에 그치는 것이니 다음 조사단의 조사보고를 처리할때는 비공개회의로 하되 이걸 공개회의로 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이사람이 가진 견해입니다.

○부의장 김석근; 강을순의원의 규칙발언 있겠습니다.

○강을순 의원; 이 3항 가지고 왓가왓부할 필요성이 다만 없고 간단히 처리될 안전입니다.

다만 이제 3항 가지고 긴 시간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 안전의견 제안을 방동석의원 어떤 타의가 있어서 의사 진행방해운운 하시는데 있을수 없는 얘기에요.

여기에 반대할 사람 하나없어요.

그러나 어제의 구실을 가지고 의제가 채택됐다는것은 있을수없는 얘기에요.

어제경위는 여기 계신 의원들 다 아실것입니다.

어제회의는 성원이 안되가지고 있다가 한쪽에서는 휴회선 언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노승환의원이 제안한것 해야한다 하다가 문안이 없기때문에 왓가왓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장단에서 찾어가지고 내일아침에 속개하겠 다 이래가지고 오늘 속개된거예요.

그것을 구태어 고집을 부려가지고 절차를 어겨서 할수없읍니다.

채택된적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원의로 물어가지고 채택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부의장 김석근; 그러면 채택여부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본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을 선언합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 의원;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없는 하나의 풍설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인기전술에 도취했다든가 또한 감정에 흘렀다든가 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한 걸 그거를 두어가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떠들면 결론적으로 마치 여기 방청객도 많으시고 외부의분도 많으신데 서울시의회가 임흥순씨가 업자로 부터 거두어들인 3억몇천만원에서 1억은 의원한테도 주었다 하는 의아심을 점점 갖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 문제는 요행히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 구성의건이라 이걸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하는 단계는 일단 조사단이 구성되서 그 조사단이 조사보고한 연후에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가지고 떠들다가는 그야말로 요전에 신문지상의 그것만 가지고 무식한 말로 의원얼굴에 똥칠했는데 이거 또 똥칠하는것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처리는 과학적인 근거밑에서 해야 하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보충설명이니 찬부여부없이 일단 이 안건을 채택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보고를 들은후에 허위라는것이 밝혀진다면 발설자인 김수길의원은 징계받아야 할것이고 또한 사실이라면 어떤의원이 관련되었다는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되 5명으로서 정부의장단에게 맡기

기로 합시다…….

(「중소」 하는이 있음)

(「안되요」 하는이 있음)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의회내의 의석비례로 보아서 민주당측에서 2명 자유당측에서 2명 무소속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할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중소」 하는이들 있음)

○한진점 의원; 조사단을 5명으로 하되 민주당에서 2명 자유당에서 2명 무소속에서 한명 하는것은 원칙으로 동의합니다만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조사해보면 나자신이 ○고 내가 단죄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피차간에 오고가는 말에 또한 풍설에 전하는 말이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설에 오르지않은 사람으로서 조사단을 구성해 주도록 해주세요.

(의석에서 ○박수형 의원; 동의집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의장 김석근; 그러면 이 조사단 구성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소」 하는이들 있음)

그러면 이 조사단구성에 관한것을 통과했습니다.

김수길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수길 의원; 본건으로 말미아마 여러의원님들께서 열렬하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해마지않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바로 이 의사당내에서 여야비밀회의에서 신문지상에 「김수길의원 부정선거자금 시의원수회사건 폭로」라는 표제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해명을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이 의안으로서 정식 채택되게 됨으로써 본인은 의원으로서 4년간 여러선배의원과의 의리로 보나 여러가지 생각하는바가 있어서 침묵을 지킬라고 노력해 왔고 또한 앞으로 또 노력할라고 합니다.

단지 이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김수길의원이 자기개인의 인기전술이나 또는 사실무근한것을 발설한것과 마찬가지로 말하신 의원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건데 언어도단입니다.

지난번 이사람이 비밀회의에서도 발설된 경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말미아마 충분히 여러의원들이 이해가 가시고 납득이 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안건은 구태어 여기에 상정시키는 의도가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있대면 이것을 하나의 누가먹고 안먹은것은 제2차문제요.

시의회 전체의 명예에 관한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안건은 올라오지않기를 바랬습니다만은 불행히 이안건이 정식으로 대두되는이상 본의원의 발설의 경위 또 책임문제 또한 정당성을 주장하지않으면 안되게된 제 입장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동시에 본인의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해서 저의 아는바를 말씀드리고 제가 무책임한 발언을 안했다는것을 여러분에게 납득이 가시도록 또한 조사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해서 흑백을 가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공개석상에서는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다.

피차 의원신상문제가 때문에 이자리에서 공개하는것을 삼가할뿐입니다.

앞으로 조사단에게 본인이 아는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장의순; 상정된 안건도 다 이미 심의가 끝났고 또 우리가 상정했던 추가예산의 심의가 하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것을 통과시키는 의미에서 즉각 지금 휴

회를 하고 18 20 21일 3일간 분과위원회 심의를 하고 19일 날은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를 환영하는데 우리도 나가야 될 줄입니다.

23일까지 예결심의를 마치고 24일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23일날 다시 회합해서 그후의 안건을 의논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이들 있음)

(「이의있어요」 하는이 있음)

○문학우 의원; 지금 운영위원장이 앞으로의 회의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하루 더 늦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집행부가 19일까지 아이젠하워대통령환영준비관계로 여유가 없을줄 압니다.

그래서 18일날 회의소집해본댔자 집행부관계관이 참석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더 늦추어서 20일부터 분과위원회심의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부의장 김석근;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석 의원; 지난번 보고사항에서 본의원이 말씀한바 있지만 아이젠하워대통령을 환영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의 국회방청과 김포환영나가는데 어떻게 할것인가를 의장단에서 주선해서 내일아침까지 의원들에게 알려주셔야 될것이라고 보아서 의장단은 내일아침까지 그걸 알아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 아까 제가 동의해서 가결된 의원발설진상규명조사단구성의건에 있어서는 금회기중에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것을 첨가합니다.

(「종소」 하는이들 있음)

○부의장 김석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기회의에 올린 긴급동의안 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장 정문현 자진사퇴권고의건을 방동석의원의 12
명의 동의로서 제안했습니다.

오늘회의는 일로 산회합니다.

(12시 25분 산회)
